

부인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의 관계*

Association among Personality, Conflict Strategies, and Marital Conflict of Married Woman*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박경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영숙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Professor : Park, KyungRhan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Professor : Yi, YeongSu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among personality, conflict strategies, and marital conflict. The subjects were 279 married women who completed a questionnaire for 4 personality types(extraversion-introversion, sensing-intuition, thinking-feeling, and judgement-perception), 5 conflict strategies(dominance, integration, compromise, avoidance, and smoothing over), and marital confli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ng the women of thinking-feeling type women, the thinking group tended to use more dominance conflict strategy than the feeling group. Among the women of judgement-perception type women, the judgement group tended to use more compromise conflict strategy than the perception group.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wo conflict strategies (dominance and compromise), two personality types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sensing-intuition), and incom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rital conflict for married women.

Corresponding Author: Kyung Rhan Park, Departmen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Obang-dong, Kimhae, 621-749

Korea Tel: 82-55-320-3242 Fax: 82-55-321-9550 E-mail: homerhan@inje.ac.kr

* 본 논문은 2003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Overall, we can conclude that marital conflict is more affected by th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conflict than by individual personality.

주제어(Key Words): 성격유형(type of personality), 갈등대처방법(conflict strategie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1. 서 론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부이혼 및 해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하루 평균 398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1992년)과 비교해 볼 때 약 2.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혼 연령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들이 자녀보다 배우자를 중시하고(이동원, 2002),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등 부부간의 친밀화와 평등화, 상호 독립적으론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추세는 이전보다 부부간의 친밀감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반대로 부부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족 우선적인 전통적인 의식의 약화로 인해 가족의 위기나 해체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활발한 사회진출, 자립의식 및 평등의식이 많이 높아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생활에서 갈등(고현선, 지금수, 1995; 오선주, 2002; 최규련, 1994) 및 스트레스(김명준 등, 2003)를 더 많이 느끼며,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Lussier & Sabourin, 1999), 결혼만족도(오선주, 2002), 배우자만족도(최선희, 2002)가 더 낮으며, 이혼제안을 더 많이 하는 것(김명준 등, 2003)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족학자 및 임상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부부갈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부갈등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변화, 환경의 변

화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예: 강학중, 유영주, 2003; 최혜경, 노치영, 1994; Kurdek, 1995)은 주로 부부갈등의 정도와 갈등의 영역,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에 초점을 두어왔을 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성격 측면이 부부갈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찰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문헌에서 부부의 성격문제는 부부싸움(강학중, 유영주, 2003) 및 부부갈등(김갑숙, 최외선, 1992), 그리고 이혼(통계청, 2003)의 가장 큰 원인제공 요인으로만 강조되고 있을 뿐 어떠한 성격유형이 갈등대처 및 갈등 정도와 관련되는가는 다루지 않았다. 개인의 성격 면에서 결혼적응(Lussier & Sabourin, 1999)이나 부부간의 갈등 및 결혼만족도(오선주, 2002)를 다룬 몇몇 연구들도 개인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유형(type) 즉 선호하는 성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성격특성(traits) 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성격유형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편견에 따른 갈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므로(김정택, 김명준, 1999)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선호성향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갈등대처방법과 부인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정도는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둘째, 부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정도 차이를 조사하고 셋째, 부부의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법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격유형

성격에 대해 아직 학자들간에 광범위하게 합의된 개념정의는 없지만 윤경자 등(2001)은 성격이란 개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을 특징지우는 행동, 사고, 감정의 두드러진 패턴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apalia와 Olds(1995)는 개인이 독특하게 비교적 지속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성격의 어떤 부분은 유전을 통해 어떤 부분은 초기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개인이 반복하여 행동하는 유형의 면에서 성격을 규정하는 특성모델(Trait Models)과 개인의 행동을 개인이 매순간 위치하게 되는 상황적 특징의 결과로서 보는 상황적 모델(Situational Models),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개인이 마음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여 이전부터 지녀왔던 자신의 성향을 강화시킨다고 보는 상호작용모델(Interactionst Models)이 있다(Zanden, 1997).

본 연구에서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에 근거하여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 나타내는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선호 경향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여기에서 인식은 사물, 사람, 사건 또는 아이디어를 깨닫게 되는 모든 방법을 가르키며, 판단은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든 방식들을 가리킨다(김정택, 심혜숙, 1995; 김정택 등, 2003).

MBTI 성격유형은 네 가지의 분리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선호경향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김정택 등, 2003). 즉 1) 태도: 태도는 개인의 인식과 판단이 주로 외부세계로 향하는가 또는 주로 내부세계로 향하는가에 따라 외향형(E: Extraversion)과 내향형(I: Introversion)으로 나뉘어진다. 2) 인식기능: 개인이 인식하려고 할 때 주로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또는 감각보다는 덜 분명한 직관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서 감각형(S: Sensing)과 직관형(N: iNtution)으로 나뉘어진다. 3) 판단기능: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주로 사고를 통한 논리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가 또는 주로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사고형(T: Thinking)과 감정형(F: Feeling)으로 나뉘어진다. 4) 행동양식: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판단과정(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인식과정(감각이나 직관)을 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판단형(J: Judgement)과 인식형(P: Perception)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MBTI 성격의 유형이론(type theory)은 성격의 특성이론(trait theory)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특질에 관심을 두고, 건강과 병리를 예견하는데 비해 이것은 개인이 선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선호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각 개인의 성격유형은 좋고 나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3).

2. 갈등대처

1) 갈등대처방법

갈등대처방법이란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활동을 말하며, 이것은 연구자들에 따라 갈등해결방안(이영숙, 1990), 갈등해결방법(김은정, 1992), 문제해결전략(유은희, 1994), 갈등대처방안(최규련, 1994), 문제해결행동유형(최혜경, 노치영, 1994), 갈등대처유형(고현선, 지금수, 1995)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선, Berko 등(1997)은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에는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의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상대방을 너무 많이 고려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만을 고려하면 원하는 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다 맞는 전략이란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갈등대처방법과 관련하여,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은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이었으며, 이 중 부인은 소극적형, 외면형에 68.9%가 포함되

어 있다고 밝혔다. 정경숙(1998)은 우리나라 주부들은 갈등해결방식에 있어서 '회피' '수동적' '소극적'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 의존성이 강하며, 유아적이고, 남편의 지배성과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싸움 시 부인의 행동을 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경우는 57%였고, 수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인 차라리 입을 다문다 51%, 자리를 피한다 26%, 상대방의 처분만 기다린다가 16%였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인 큰소리를 친다는 46%, 욕을 한다가 끝까지 따진다는 각각 11%,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는 부인은 7%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선희, 2002). 이와 유사하게 강학중과 유영주(2003)는 부부가 싸울 때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협상(감정적 협상, 인지적 협상), 심리적 공격(약한 심리적 공격, 심한 심리적 공격), 신체적 공격(약한 신체적 공격, 심한 신체적 공격)으로 구분되며,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싸움 대처행동으로 협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심리적 공격이었고 신체적 공격은 부부싸움 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Vuchinich(1987)는 가족 상호작용에서 반드시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복종, 타협, 무관심, 철회의 4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많은 치료학자들이 가장 좋은 갈등해결방법으로 권장하는 '타협'을 사용하는 가족은 실제로 14%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

주부의 성격유형에 따라 부부갈등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에서, 정경숙(1998)은 회피적인 해결방식은 외향형/내향형 집단 가운데 내향형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통제적 방식은 사고형/감정형 집단 가운데 사고형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원표(1997) 역시 MBTI 성격유형 분류 가운데 외향성/내향성을 비교해 보면, 외향적 성격유형이 내향적 성격유형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Percival 등(1992)도 내향형은 외향형보다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였으며, 감정형은 사고형보다 자기주장이

약하며 협조적인 성향을 띤다고 제시하였다(정경숙, 1998 재인용).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본 결과(김명준 등, 2003)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은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많았으며, 다른 것을 대신하여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많았다. 가까운 사람과 의논한다는 응답은 감정형이 사고형보다 높았으며,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기를 기도하고 바란다는 응답은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많았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 중 하나는 두 INF*형이었으며, 가장 낮은 유형 중 하나는 EN*J였다. 장월성(2001)의 연구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와 '친구나 이웃을 방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외향형의 사람들이 내향형의 사람들보다 이러한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감정형 집단은 사고형 집단에 비해 '운동이나 여행 등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구나 이웃을 방문'하는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감각형/직관형 집단과 판단형/인식형 집단간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

1) 갈등내용

갈등이란 개인의 어떤 관심사, 욕구, 욕망, 바람에 대한 만족을 상대방이 좌절시키고 있거나 혹은 좌절시킬지도 모른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어떤 상황을 말한다(Berko et al., 1997). 이것은 서로 맞서는 목표, 자원 사용의 불일치, 또는 태도와 가치에서의 차이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갈등요인은 대체로 성격문제, 성문제, 자녀문제, 의사소통문제, 시가문제, 배우자부정문제, 경제난문제, 금전관리문제 등에 있으며(김갑숙, 최외선, 1992), 부부싸움의 내용도 성격문제, 성문제, 자녀문제, 의사소통문제, 친인척관계문제, 애정문제, 가정경제관리 문제, 기타 가사노동, 여가활동, 생활습

관에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강학중, 유영주, 2003).

이와 같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갈등의 중심은 보통 관계 그 자체이다.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부부의 관계적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로 표면화 된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핵심적인 문제는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 신뢰, 애정과 관련된다는 것이다(Retzinger, 1991).

2) 성격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몇몇 관련문헌에 따르면 부인의 성격은 결혼생활의 적응, 만족 및 갈등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오선주(2002)는 주부들의 성격특성이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 결혼갈등과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Lussier와 Sabourin (1999)은 여성의 성격이 자신의 결혼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17%로, 전반적으로 남성의 성격보다 자신의 결혼생활적응을 더 많이 설명하며, 여성의 신경증적인 성격이 결혼생활의 부적응과 가장 강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김명준 등(2003)의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에 대한 연구자료 가운데 결혼만족도(1107명)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1097명)에 대한 응답을 재분석해 본 결과, 결혼만족도(평균 5점 만점)는 판단형 4.10점/인식형(3.81점), 사고형 4.05점/감정형 3.92점, 외향형 4.05점/내향형 3.98점, 감각형 4.02점/직관형 4.00점이었다. 배우자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판단형 4.08점/인식형 3.75점, 사고형 4.03점/감정형 3.89점, 외향형 4.04점/내향형 3.93점, 감각형 3.99점/직관형 3.97점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제안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이혼 제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격지표 가운데 판단형/인식형의 행동양식이 결혼생활의 질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되는 반면 감각형/직관형의 인식기능은 결혼생활의 질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부성격유형의 유사성 정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고찰한 이선희(2000)는 MBTI 성격유형의 감각형/직관형 지표들의 조합에서 부부의 의사소통 및 결

혼만족도의 차이가, 다른 지표들의 조합에서의 차이보다 높은 점수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MBTI의 인식기능이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으며, 정경숙(1998)은 판단형/인식형 지표의 판단형과 사고형/감정형 지표의 감정형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향형/내향형의 내향형과 사고형/감정형의 사고형은 갈등해결방식에서 '회피' '통제' 방식을 취하면서 결혼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고 하여 연구들간에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다.

3) 갈등대처방법에 따른 부부갈등

어떤 특정한 갈등해결유형이 결혼만족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주요과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Gottman, 1994) 그리고 결혼생활 만족도의 감소는 결혼의 악화를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을 예고하기 때문에(Gottman & Levenson, 1992)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하였을 때 갈등의 존재 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갈등대처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Yelsma, 1984; 이선희, 2000 재인용), 문제를 가진 상담부부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전략으로 협동적인 방법보다는 회피적이거나 경쟁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었다(유은희, 1994).

이와 유사하게, 정경숙(1998)의 연구에서도 갈등해결방식의 '회피형'과 '통제형'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조정형'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경숙, 1998), 강학중과 유영주(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싸움 대처행동 중에서 감정적 협상과 인지적 협상은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주부들의 결혼생활의 행·불행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각 배우자가 건설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파괴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일관성 있게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갈등해결유형을 대결형, 후퇴형, 순응형으로 나누어 2년에 걸친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조사한 Kurdek(1995)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인의 결혼만족이 남편의 갈등해

결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부인의 갈등해결방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갈등해결방법은 본인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여성 279명이다. 자료 수집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도시와 소도시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연구자들과 MBTI 중급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MBTI 성격검사지와 부부갈등정도, 갈등대처방법과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지를 배부한 자리에서 응답을 하도록 하여 바로 수거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 분포는 내향성 60.2%/외향성 39.8%이며, 감각형 87.1%/직관형 12.9%, 사고형 67.4%/감정형 32.6%, 판단형 67.7%/인식형 32.3%이었다. 연령 범위는 만 30세부터 59세로 평균연령은 38.8세이며, 교육 수준은 중 고등학교 졸업이 42.5%이었고, 전문대졸업이 19.3%, 대학졸업이상이 36.8%였다. 기혼여성 중 취업여성이 46.4%, 전업주부가 53.6%였다.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인 11.7%, 5년 이상인 88.3%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11.5년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각한 경제수준은 하층이 24.6%, 중층이 58.7%, 그리고 상층이 16.6%로 나타났다.

2. 척도

1) 성격유형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판으로 표준화된 MBTI 검사지 자가채점용 GA형을 사용하였다. MBTI 검사지는 선호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지표, 즉 외향형-내향형(E-I) 21문항, 감각형-직관형(S-N) 26문항, 사고형-감정형(T-F) 23문항, 판단형-인식형(J-P) 24문항 등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요강에 따라 점수가 높은 선호성 지표를 결정하여 E/I, S/N, T/F, J/P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BTI로 상관관계 분석 시에는 선호점수가 비연속 점수이기 때문에 연속점수로 전환하였다. 연속점수로 전환하는 방법은 선호유형이 E, S, T, J인 경우는 100에서 선호점수를 빼고, 선호유형이 I, N, F, P인 경우는 100에다 선호점수를 더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이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형의 성격이 강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격이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성격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김정택 등, 2003).

2) 갈등대처방법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하며, 갈등대처방법 조사문항은 Berko 등(1997)이 제시한 척도를 토대로 하여, “부부가 갈등상황에 있을 때 평소 어떻게 남편에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방법은 5가지 유형, 즉 갈등문제를 철회, 부정하거나 또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회피형’, 두 사람의 관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한 나누기 전략인 ‘타협형’, 배우자의 소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는 덮어두는 ‘덮어주기형’, 배우자의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배형’, 그리고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고 노력하는 ‘통합형’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54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정도

부부갈등은 선행연구들(강학중, 유영주, 2003; 김갑숙, 최외선, 1992; 제갈정, 1993)을 참고하여 생활습관 차이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함께 보내는(여가)시간문제, 돈문제, 시댁과 관련된 문제, 의견·가치관 차이문제, 집안일 관리문제, 성생활문제 등 총 9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없는 편이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t검증,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및 부부갈등정도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조사된 3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 부인의 갈등대처방법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기간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구체적으로, 학력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에서는 대졸 이상의 부인이 고졸이하 부인보다 덮어두기를 적게 사용하며, 반면 지배유형이나 통합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욕구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중층인 경우보다 하층인 경우 지배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인데,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학력이나 직업, 소득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결과(최혜경, 노치

영, 1994)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갈등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즉 하류 집단이 중류나 상류 집단에 비하여 갈등 정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개인소득이나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은 것으로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갑숙, 최외선, 1992; 최규련, 1993)과 일치한다.

한편 결혼기간에 따라 갈등정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김갑숙, 최외선(1992), 제갈정(199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결혼지속연수가 길수록 결혼의 질이 낮아지거나(이수정, 1997), 결혼초기보다 결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변 인	구 분	갈등정도		F
		M(SD)	D	
학 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2.63(.63)		.47
		2.57(.64)		
경제 수준	상	2.47(.65)	A	4.48*
	중	2.55(.61)	A	
	하	2.79(.66)	B	
결혼 기간	5년 미만	2.40(.52)		-1.98
	5년 이상	2.62(.68)		

* P<0.05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변 인	구 분	덮어두기형		지 배 형		타 협 형		통 합 형		회 피 형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학 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3.17(.82)		3.15(.82)		3.63(.63)		3.31(.86)		3.27(.73)	
		2.71(.80)		3.40(.79)		3.60(.69)		3.55(.79)		3.12(.84)	
	t	21.56***		-6.70**		.15		-5.37*		2.44	
결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2.76(.74)		3.41(.68)		3.55(.70)		3.46(.86)		3.07(.83)	
		2.93(.85)		3.27(.83)		3.62(.66)		3.44(.82)		3.20(.79)	
	t	-1.20		.78		-.31		.02		-.74	
경제수준	상	2.94(.93)		3.27(.76)	A	3.58(.67)		3.34(.79)		3.10(.78)	
	중	2.92(.85)		3.22(.82)	A	3.64(.65)		3.46(.88)		3.24(.81)	
	하	2.82(.66)		3.55(.86)	B	3.48(.70)		3.54(.68)		3.11(.77)	
	F	.28		2.86*		1.09		.86		.89	

* P<0.05, ** P<0.01, *** P<0.001

혼증기에 있는 집단들의 결혼갈등이 높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오선주, 2002)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학력에 따라 부부갈등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도 일부 연구(오선주, 2002)와는 일치하나,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김명준 등, 2003) 결혼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이수정, 1997)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간의 불일치한 결과는 변수의 범주분류상의 차이 및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고찰이 요망된다.

2.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및 부부갈등정도

1)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부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갈등대처방법이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표 3), 판단기능인 사고형/감정형에 있어서 사고형이 지배형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양식인 판단형과 인식형에 있어서 판단형이 타협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감정형에 비해 사고형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김정택 등, 2003) 갈등관리 시 지배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판단형 부인이 타협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좀더 다른 관점은 얻을 수 없나 싶어 설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인식형에 비해 판단형은 결정을 내릴 만큼만 관찰했다 싶으면 재빨리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인 것(김정택 등, 2003)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통제적 갈등해결방식은 사고형/감정형 집단 가운데 사고형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회피적 해결방식은 외향형/내향형 집단 가운데 내향형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밝힌 정경숙(199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 성격유형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표 4>는 성격유형에 따라 남편과의 갈등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내향적인 부인(M=2.67)은 외향적인 부인(M=2.48)보다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향형/내향형의 내향형과 사고형/감정형의 사고형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고 밝힌 정경숙(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결혼생활에 잘 적응해 간다고 밝힌 Richmond 등(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격지표 가운데 판단형/인식형의 행동양식이 결혼만족도와 가장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된 김명준 등(2003)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인의 성격과 결혼

<표 3>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변 인	구 분	뒷어주기형 M(SD)	지 배 형 M(SD)	타 협 형 M(SD)	통 합 형 M(SD)	회 피 형 M(SD)
태 도	외 향 형	2.92(.87)	3.23(.82)	3.58(.63)	3.37(.82)	3.24(.78)
	내 향 형	2.89(.79)	3.39(.80)	3.64(.71)	3.55(.82)	3.10(.80)
	t	.28	-1.56	-.73	-1.74	1.40
인식기능	감 각 형	2.91(.84)	3.29(.82)	3.62(.63)	3.44(.81)	3.22(.78)
	직 관 형	2.89(.83)	3.32(.74)	3.45(.80)	3.46(.91)	2.96(.83)
	t	.10	-.21	1.48	-.10	1.81
판단기능	사 고 형	2.89(.84)	3.38(.77)	3.59(.66)	3.46(.83)	3.15(.80)
	감 정 형	2.94(.82)	3.10(.87)	3.64(.65)	3.41(.82)	3.26(.77)
	t	-.50	2.68**	-.59	.43	-1.10
행동유형	판 단 형	2.88(.80)	3.30(.80)	3.67(.62)	3.50(.81)	3.21(.77)
	인 식 형	2.96(.91)	3.27(.85)	3.47(.72)	3.32(.85)	3.11(.83)
	t	-.78	.31	2.33*	1.67	.99

* P<0.05, ** P<0.01

〈표 4〉 성격유형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성격유형	부부갈등정도 M(SD)
태도	외향형	2.48(.65)
	내향형	2.67(.61)
	t	-2.41*
인식기능	감각형	2.60(.61)
	직관형	2.59(.76)
	t	.07
판단기능	사고형	2.60(.63)
	감정형	2.58(.64)
	t	.21
행동양식	판단형	2.57(.63)
	인식형	2.65(.63)
	t	-1.06

* p<.05

생활의 질을 다룬 연구들 간에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3. 부인이 인식하는 부부간의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간의 갈등정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변인, 갈등대처방법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우선, 모델 1에서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경제수준($\beta=-.20$)만이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갈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설명력은 4.7%였다.

부인의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 모델 2에서 부인의 성격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수준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었다. 부인의 성격유형 중 인식기능($\beta=.14$)만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직관형일수록 갈등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성격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4.3% 증가되어 모델 2의 총설명력은 9.0%였다.

모델 3에서 갈등도에 대한 부인자신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한 결과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경제수준($\beta=-.19$)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성격 중 태도($\beta=.15$)가 유의한 변인으로 첨가되어 인식기능($\beta=.17$)과 함께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인의 갈등정도는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며 성격 중 내향형일수록 그리고 직관형일수록 갈등정도

〈표 5〉 부부갈등정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력	.14	.02	.12	.02	-.07	-.01
	결혼기간	.00	-.09	.00	-.08	.00	-.06
	경제수준	-1.79	-.20**	-1.66	-.19**	-1.69	-.19**
성격유형	외향형-내향형			.03	.13	.03	.15*
	감각형-직관형			.04	.14*	.05	.17**
	사고형-감정형			-.01	-.03	.01	.03
	판단형-인식형			.08	.03	-.03	-.00
갈등대처 방법	덜어주기형					.11	.05
	지배형					.52	.22**
	타협형					-.93	-.33***
	통합형					-.15	-.06
	회피형					-.08	-.00
R ²		.047		.090		.250	
F값		2.63*		2.18*		4.16***	

*P<0.05, **P<0.01, ***P<0.001

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갈등도에 대한 부인자신의 갈등대처방법 중에서는 지배형($\beta=.22$)과 타협형($\beta=-.33$)이 갈등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부인의 지배적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높게 하는 방법이며 부인의 타협적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낮추게 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6.0% 증가하여 모델 3의 총 설명력은 25.0%였다.

종합적으로, 부인 자신의 갈등대처방법은 부인이 지각하는 갈등정도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성격의 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부간의 갈등정도를 예측하는 변인 중 성격의 중요도는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갈등대처방법이 주부들의 결혼생활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요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선호성향에 따라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정도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기혼여성 279명을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과 갈등정도를 살펴 본 결과, 사고형인 부인은 갈등대처방법 중 지배형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으며, 판단형 부인은 타협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형/외향형 집단에서 개인의 인식과 판단이 주로 외부세계로 향하는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그리고 감각형/직관형 집단에서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선호하는 감각형의 부인일수록 부부갈등을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의 갈등 시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하여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외부적으로 솔직하게 표현, 행동하는 개인들이 갈등을 적게 인식하며, 또한 갈등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한 부분까지 생각하는 직관형의 사람들 보다는 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감각형의 개인들이 갈등을 적게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그러나 부인이 선호하는 성격유형은 예상과는 달리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정도($R^2=0.043$)에 미약하게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성격특성 면에서 결혼만족도($R^2=0.11$) 및 결혼갈등정도($R^2=0.10$)를 다룬 연구(오선주, 2000)와 결혼생활적응($R^2=0.17$)을 고찰한 연구(Bouchard et al., 1999)에서 밝혀진 부인성격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같은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천적인 심리적 선호경향을 다룬데 비해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긍정·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성격특성, 예를 들어 신경증적 특성(Bouchard et al., 1999), 안정성/책임성을 가진 특성(오선주, 2000)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질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해왔고,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른 성격유형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반응하게 하는 특정 정신활동의 형태이므로 노력에 의해 변화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격을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인의 성격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격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부인의 갈등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인이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이었다. 특히 자신의 욕구와 배우자의 욕구를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하는 타협적인 방법이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자신의 욕구만을 고려하는 지배적인 방법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자들(예: Berko 등, 1997)이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통합적'인 대처방법은 유의하게 작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부갈등 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주장하면서, 배우자가 원하는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승-승(win-win)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아직 의사소통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보다 갈등대처방법이 결혼에서의 갈등정도에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갈등이 만연된 부부관계에서는 현재의 당면 문제에 집착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부들에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부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학력과 결혼기간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경제수준은 부부갈등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부부간의 갈등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 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있는 부부들은 갈등적 상황이 부부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부부들은 보다 많은 이해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양 배우자의 성격이 고려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쪽 배우자의 정서, 사고, 행동은 다른 쪽 배우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hristensen 등(1995)의 주장대로 배우자들은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성격 및 갈등대처방법이 자신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배우자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특성과 배우자가 인식하는 성격특성 및 갈등대처방법에 따른 결혼의 질을 밝히는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학력, 연령, 종교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특성이 유사한 부부들이 결혼생활 적응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부부의 결혼의 질이 높을까 아니면 보완적 성격의 부부들이 결혼의 질이 더 높을까에 대한 고찰도 추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다. 따라서 성격과 결혼생활적응간의 관계의 인과성은 조사될 수 없었는데, 결혼연수가 지속됨에 따라 부부의 갈등대처방법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가 갈등정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심층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학중, 유영주(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김갑숙, 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명준, 전인식, 백연정(2003).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 CD.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 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김명준, 율김(1999).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1995).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2003). MBTI 개발과 활용. Myers, I. B., & McCaulley, M. H.(1985). *Theory, Psychometrics Application*.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오선주(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1권.
- 윤경자, 이기숙, 김은경, 율김(2001). 성인발달과 노화. 서울: 교문사. Hoyer, W. J., Rybash, J. M., & Roodin, P. A.(1999). *Adult Development and Aging*(4th Ed.), New York: The McGraw-Hill Co., Inc.
- 이동원(2002). 한국 가족의 현주소.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11-32.
- 이선희(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

- 사학위논문.
- 이수정(1997).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49-66.
- 장월성(2001). 주부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및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숙(1998).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해결방식과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연구: 중졸학력 주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갈정(1993). 도시 중산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원표(1997). 고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선희(2002). 부부관계,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한국가족의 현 주소. 서울: 학지사, 89-136.
- 최혜경,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통계청(2003). 인구통계 통계연보(혼인·이혼 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2003). MBTI 전문가격교육 보수과정 자료집(2003).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ouchard, G., Lussier, Y., & Sabourin, S. (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51-660.
- Christensen, A., Jacobson, N. S., & Babcock, J. C. (1995). Integrative behavioral therapy. In N. S. Jacobson & A. S. Gurman(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ew York: Guilford., 31-64.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21-233.
- Kurde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Lussier, Y., & Sabourin, S. (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51-660.
- Papalia, D. E., & Olds, S. W. (1995). *Human Development*(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Retzinger, S. M. (1991). *Violent Emotions*. London: Sage.
- Richmond, L. D., Craig, S. S., & Ruzicka, M. E. (1991). Self-monitoring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 177-188.
- Vuchinich, S. (1987). Starting and stopping spontaneous family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91-601.
- Zanden, J. W. V. (1997). *Human Development*(6th Ed.).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2005년 5월 16일 접수, 2005년 7월 15일 채택)